

교회소식 및 광고

1. 주일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지난주일은 한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함으로 주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심은 선교를 위한 비빔밥 바자입니다. 후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성경통독(48주)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교우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4. 중보기도: 천춘미 집사님, 송혜숙 권사님 온전한 회복 위해 기도바랍니다.
5. 대강절 10일 특별 새벽기도회: 12월 8/19일 전 성도들의 참여바랍니다.

** 성가대/한글학교 문의--반주자: 박해경(240)641-3509 **

** 교회학교 문의--교육 담당 전도사: 이창연(240)271-5815 **

향기로운 예물

지난 주일 헌금 봉헌 (\$4,694.00)

십 일 조: 김광일 천춘미, 송희복 송순란, 심선섭, 이진원 유금자, 유혜영,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조윤경.

감사헌금: 김광일 천춘미,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주일헌금: 고향숙, 박순주, 손명원, 송정례, 심선섭, 조병우, 조병기.

추수감사: 김광일 천춘미, 박병기, 손명원 송명자, 송성균, 손정옥, 송정례 한만호, 송희복 송순란, 성 평 김광순, 심선섭, 유혜영, 이진원 유금자, 이관호, 이창연 박해경,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조윤경, 무명

이번 주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2. 2세들을 위한 영어예배, 한글학교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도록.
3. 대강절기에 마음의 구유를 비우고 주님오심을 영접하도록.
4. 천춘미 집사, 송혜숙 권사, 송희복 집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5. 새롭게 시작하는 한글학교와 은혜로운 한 해의 결산을 위해서.

제7권 48호 | 2015년 11월 29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어린이 예배	오전 11:15
새벽 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예배	저녁 8:00

필라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다 같 이

합심기도 Prayer 다 같 이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유혜영 권사

송 영 Spiritual Song 다 같 이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조병우 목사

찬 양 Anthem 성 가 대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시 편 100편 1~5절 다 같 이

설 교 Sermon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조병우 목사

폐회찬송 Closing Hymn 434당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 같 이

♣ 헌금봉헌 Offering 찬송가, 348장 (4절) 다 같 이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조병우 목사

♣ 표에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시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요 예배

수요 저녁 8:00

새벽기도회

새벽기도 6:00 (월-토)

이번주 섬김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담당	안내위원
이번주	유혜영 권사	조병우 목사	다함께	조민연 송정예
다음주	이진원 권사	박해경 사모	믿음속	



< 가나다라... 기도의 글 >

가/는 길 험한 산도 거친 풍랑도 만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다름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도전하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랄라 노래만 할 수 있는 상황들 아니지만 옆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보처럼 사는 것이 손해 보는 듯 하나 그 안에 더 큰 진리와 은혜 있음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사/진빨~ 화장빨, 조명빨 이라도 예쁘다~라는 소리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을 매일매일 맞이함에 하루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겨진 풍성한 의미들을 오히려 많이 경험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남의 축복주셔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시고 새로운 도전들을 허락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카/멜레온처럼 변신해보고 싶은 욕심 있었지만 내 자리가 어딘지 다시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타/지에 살고 있는 식구들과의 교제를 통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파/아란 하늘을 보며 넓고 푸르게, 파아란 바다를 보며 깊고 푸르게 살고 싶은 소망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침을 감사함으로 맞을수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